은상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팔공산에는 신승겸 장군 동상!

제갈윤서 | 대구 영신초등학교 2학년

"엄마! 저거 이순신 장군 동상이야? 잠깐만 차 세우고 구경하다 가면 안돼?"

나의 쌍둥이 동생이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학교다. 학교에서 집까지 꽤 먼 거리이긴 하지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주로 엄마 차로 학교를 다닌다. 오늘은 들릴 곳이 있어 평소와 다른 길로 오다가 '파군제 삼거리'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어떤 동상을 보게 되었다. 쌍둥이 남동생은 이 동상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 것 같다고 했다. 엄마는 누구의 동상인지 확인을 하려고 동상을 조금 지났고 '신숭겸 장군'의 동상인 것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동상을 조금 지난 곳에 신숭겸 장군의 유적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시간도 있는데, 궁금한 김에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 들렸다 갈까?"

엄마는 우리에게 제안하셨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발열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했지만, 오랜만에 소풍을 나온 느낌이었다. 그곳에는 진한 핑크색 꽃이 많이 피어 있었고, 그 꽃은 배롱나무꽃이라고 했다. 유적지 설명을 보니, 신숭겸 장군은 왕인 왕건을 도와 함께 고려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왕건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왕으로 변장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다. 신숭겸 장군이 죽은 자리가 지금 유적지가 있는 자리이고, 왕건이 슬프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이곳에 충절비라는 곳을 세웠다고 했다.

"어머! 대단한 장군이었잖아! 애들아!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대단한 분이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구나…. 대구에 이름이 신기한 곳들이 많다고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 라고 하시며 엄마는 왕건과 관련된 대구의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엄마는 서울에서 이곳 대구로 시집을 오셔서 우리만큼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 많다며 감동한 얼굴이었다.

설명으로는 우선 우리 학교가 있는 팔공산은 원래 공산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에서 왕건의 여덟 장수가 죽었다고 해서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신숭겸 장군 동상이 있는 '파군제 삼거리'의 '파군'도 왕건의 군대가 크게 패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했다. 크게 진 왕건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이제 적들이 쫓아오지 않겠지?' 라고 안심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안심'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엄마는 낯선 지명들이 역사적인 곳이었다며 흥분하셨고, 우리는 학교가 있는 팔공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대구의 모든 곳이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 느낌이다. 역사를 배우고 체험을 하려면 경주나 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이 박물관이었다. 멀리 안 가도 주변을 둘러보면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 많이 피어있는 진분홍색 배롱나무꽃을 보면서 “왕건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며 흘린 신숭겸 장군의 피처럼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거야. 잊지 마.” 라고 하셨다.

“무슨 소리! 동상을 발견한 건 우리인데! 그동안 모르는 거 알게 되고 이렇게 엄마랑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건 다 우리 덕분이라고! 엄마가 잊지 마!”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우리나라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는 사실을!